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2014년 12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과장 봉관수

Tel : 759-4439 Fax : 759-4485 E-mail : bo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 세계경제 ]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이어졌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sup>1)</sup>					
(전기비연율, %)								(기말기준, %)					
		132/4	3/4	4/4	141/4	2/4	3/4			14.9월	10월	11월	12.10월
미	국	1.8	4.5	3.5	-2.1	4.6	3.9	미국		2.49	2.34	2.16	2.16
유로지역		1.3	0.7	1.0	1.3	0.3	0.6	독일		0.95	0.84	0.70	0.68
영국								영국		2.43	2.25	1.93	1.91
일	본	3.0	1.6	-1.5	5.8	-6.7	-1.9	브라질		12.31	12.07	11.82	12.50
중	국 <sup>1)</sup>	7.5	7.8	7.7	7.4	7.5	7.3	인도		8.51	8.28	8.09	7.91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 [ 실물경제 ]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이 미흡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13.4/4	14.1/4	2/4	3/4	14.8월	9월	10월	11월
GDP 성장률	2.3	3.0	3.7	3.9	3.5	3.2	-	-	-	-
GDP 민간소비	1.9	2.0	2.2	2.5	1.5	1.5	-	-	-	-
소매판매	2.4	0.8	1.2	2.5	0.7	1.4	2.3	1.6	-0.3	..
(S.A, 전기비)	-	-	(0.3)	(0.3)	(-0.5)	(1.4)	(2.9)	(-3.2)	(-0.4)	..
GDP 설비투자	0.1	-1.5	10.9	7.3	7.7	4.3	-	-	-	-
설비투자지수	-2.8	-1.3	10.4	5.9	6.2	1.5	-9.9	12.8	-8.8	..
(S.A, 전기비)	-	-	(5.9)	(-5.2)	(2.1)	(-0.9)	(-10.8)	(13.3)	(-4.6)	..
GDP 건설투자	-3.9	6.7	5.4	4.3	0.2	2.6	-	-	-	-
건설기성액	-5.0	10.1	9.7	6.5	0.1	-1.9	-0.8	-3.9	-5.7	..
(S.A, 전기비)	-	-	(-0.7)	(1.5)	(0.2)	(-3.2)	(0.6)	(-5.8)	(0.2)	..
수출(통관)	-1.3	2.1	4.7	1.7	3.2	3.7	-0.4	6.4	2.3	-1.9
(일평균, 억달러)	(20.0)	(20.5)	(21.1)	(20.7)	(21.9)	(20.7)	(20.5)	(22.6)	(22.5)	(20.9)
제조업 생산	1.4	0.3	1.8	0.6	0.3	1.2	-2.7	2.0	-3.4	..
(S.A, 전기비)	-	-	(2.1)	(0.4)	(-1.1)	(-0.2)	(-3.8)	(-0.2)	(-1.8)	..
서비스업 생산	1.6	1.4	2.1	1.9	1.4	2.6	2.1	3.0	2.6	..
취업자수 증감 <sup>1)</sup>	436.5	385.7	541.4	729.4	463.7	516.5	593.5	450.9	405.9	438.3
(공공부문 <sup>2)</sup> 제외)	(436.5)	(371.4)	(491.6)	(703.5)	(461.8)	(527.3)	(603.5)	(464.3)	(457.4)	(481.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물 가 ]

-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0%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8%에서 1.6%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14.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1.6	1.4	1.1	1.2	1.0
(전월비)	(0.1)	(0.2)	(-0.1)	(-0.3)	(-0.2)
▪ 농축수산물	-2.2	-4.8	-3.0	-1.9	-0.1
(농산물)	(-9.3)	(-12.6)	(-9.4)	(-7.7)	(-6.2)
▪ 공업제품	1.9	2.1	0.9	0.6	-0.1
(석유류)	(-3.0)	(-4.7)	(-5.7)	(-6.2)	(-7.7)
(석유류제외)	(2.9)	(3.5)	(2.2)	(1.9)	(1.4)
▪ 서비스	1.7	1.7	1.7	1.7	1.6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2.2	2.4	1.9	1.8	1.6

-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전세가격은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주택가격상승률

	(전월대비, %)				
	14.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택 매매가격	0.1	0.1	0.3	0.3	0.2
▪ 수도권 <sup>1)</sup>	0.0	0.1	0.3	0.3	0.1
(서울)	(0.0)	(0.0)	(0.2)	(0.2)	(0.1)
▪ 광역시 <sup>2)</sup>	0.2	0.2	0.3	0.4	0.4
▪ 지방 <sup>3)</sup>	0.2	0.2	0.2	0.3	0.2
주택 전세가격	0.2	0.2	0.3	0.3	0.3
▪ 수도권 <sup>1)</sup>	0.2	0.3	0.4	0.4	0.3
(서울)	(0.1)	(0.3)	(0.4)	(0.4)	(0.3)
▪ 광역시 <sup>2)</sup>	0.2	0.2	0.3	0.3	0.3
▪ 지방 <sup>3)</sup>	0.2	0.2	0.2	0.2	0.1

주: 1) 서울, 인천,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자료: 국민은행

##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었다. 주가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다가 상당폭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하여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였다.

### 금리, 주가 및 환율<sup>1)</sup>

	14.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0일
CD(91일)금리(%)	2.65	2.40	2.35	2.14	2.13	2.13
국고채(3년)금리(%)	2.52	2.51	2.30	2.14	2.07	2.18
KOSPI	2,076	2,069	2,020	1,964	1,981	1,946
원/달러 환율	1,028	1,014	1,055	1,069	1,108	1,102
원/100엔 환율	1,000	977	965	964	937	926

주: 1) 기말기준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세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